

##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해외문화체험의 국가가 '베트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수강 중이었던 '국제무역실무', '국제무역현장실무' 등의 과목을 통해 베트남 국가의 정보는 알았지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문화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하계 해외문화체험으로 '베트남'이 선정되었을 때, 그동안 배운 '무역', '유통'의 키워드를 보는 것을 넘어 이 '베트남'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와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체험을 진행하고자 했다.

### 1. 베트남의 기후

먼저,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베트남 기후'에 대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물론 방문할 당시의 기온이 28~31도 사이로 예상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줄곧 끼어 있는 먹구름과 높은 습도는 베트남에 온 것을 실감케 하였다. 또한 체험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또 잠시 관광지를 구경하는 도중에 짧은 시간 비가 세차게 내리는 '스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에 당황할 법도 했지만, 현지인들은 빠르게 천막을 치고 우비를 입으며 다시 일상생활을 이어나갔다. 비는 정말 금세 그쳤고, 이러한 스콜은 체험 내내 일어나며 베트남의 기후를 실감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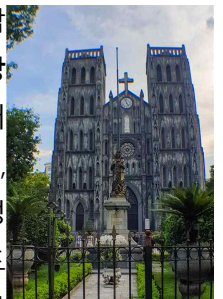
### 2. 오토바이 문화



베트남 문화 중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오토바이' 문화였다. 한국은 오토바이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는 국가이지만,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600만대가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문화 체험 도중 찍은 사진을 훑어보면 거의 모든 사진에 오토바이가 찍힐 정도로 오토바이 이용량은 상당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오토바이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베트남의 콜택시 개념인 '그랩' 앱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에 길을 건널 때 오토바이와 속도를 맞춰야 하는데, 빠른 속도로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오는 차와 오토바이를 살피며 건너지는 것이 중요하다. 경적을 자주 울리지만 이는 보통 '조심해라',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이다. 첫날은 겁을 먹었지만, 2~3일째부터는 혼자서 길을 건널 정도로 익숙해졌다. 다만 신호등이 있더라도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일이 다수이며, 8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신호등도 녹색불의 시간이 금세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으며,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신호등이 많아 미리 출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위를 잘 살펴 건너지는 것이 중요하다. 헬멧의 경우 필수 착용으로 법이 지정되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법을 피하기 위해 약 2,000원의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3. 베트남의 역사

첫째 날은 공식적인 일정으로 스트리트카를 타고 호암끼엠 호수 주변을 관광을 하였다. 베트남 시장을 살펴보고 미술품, 골동품, 엽서, 길거리 음식 등을 판매하는 거리를 보았고, **성요셉 성당**을 구경하였다. 성요셉 성당은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당으로, 외관은 2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딕 복고풍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 성당은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건설한 건축물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모델로 건축되었다고 한다. 실제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정각에 울리는 종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날 '오페라 하우스'도 방문했었는데, 오페라하우스도 성요셉 성당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 완성된 건축물로,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하노이 자을 탐구 일정(셋째 날) 때 주로 이루어졌다. 둘째 날 호치민 생가와 바딘 광장 등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셋째 날의 일정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둘째 날 저녁, 하노이에서의 역사 관광 일정을 계획하고 오전 9시부터 조별 공식 시간(오후 3시)까지 역사에 관한 관광지를 둘러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호텔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하노이 '문묘'**였다. 문묘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교로, 공자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시험이나 취업의 행운을 빌기 위해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현지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다. 내부에는 관광객을 위해 문묘에 대한 전시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가장 안쪽 건물로 들어서면 보이는 제례를 올리는 공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경건하게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방문할 당시에는 잘 몰라서 그저 둘러보고 나왔는데, 문화 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들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그때 당시 알았다면 더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베트남 국립 미술관'**이었다. 베트남 국립 미술관은 평소에 미술관이냐 박물관을 좋아하는 마음에 고민 없이 넣은 일정 중 하나였지만, 베트남 역사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았던 장소였다. 국립 미술관은 베트남의 문화, 식민지, 또 전쟁과 그 이후의 베트남의 모습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의 그림들이었다. 대부분의 그림들이 어두웠고 바다는 주로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그림도 보였고, 전쟁 승리 이후의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림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생각 이상으로 베트남의 그림들이 꾸밈없이 솔직하다 느껴졌고, 시대순으로 관람한 덕에 베트남 역사의 흐름을 함께 걸어보는 느낌이라 가장 마음에 남는 곳이었다.



이후 **'탕롱 황성'**에 방문하였는데, 탕롱 황성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트남의 황궁이다. 내부에 들어서면 여러 전시와 함께 웅장한 탕롱 황성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올라가보면 전방의 **'하노이 깃발탑'**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더 많은 전시가 있었지만, 베트남 미술관과 박물관 모두 입장료가 약 4만동에서 7만동으로 저렴한 반면 팸플렛 등은 제공되지 않거나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베트남의 유네스코 문화 유산 중 하나를 살펴보고 그 안의 섬세한 조각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방문했던 시간에 군사역사박물관이 점심시간이라 운영하지 않아 대안으로 방문한 공간이었지만, 베트남 건축물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후 마지막으로 가장 가보고 싶었던 **'호아로 수용소'**를 방문했다.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베트남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던 장소가 바로 이 '호아로 수용소'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부는 호아로 수용소 내부를 재현해놓은 곳과 당시 사용했던 옷과 음식, 처형 도구, 추모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형도구로는 단두대가 놓여져 있었고, 사진 자료로 실제 목이 잘려 머리만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보여주면서 당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협소했고, 오디오 가이드를 따로 듣지 않은 탓에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국립 미술관에서 보았던 감정들의 실재를 마주한 순간이라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날에는 공식적인 일정으로 님빈의 **'바이딘 사원'**을 방문하였다. 바이딘 사원은 수도 이전 기념 천년을 맞이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2010년에 완공된 사원이라고 한다. 내부에는 석조들로 늘어진 회랑을 볼 수 있는데, 석조 무릎을 많은 관람객이 만졌는지 검게 변해 있었다. 미술관에서, 그리고 바이딘 사원에서 느낀 것은 베트남 석조상들은 포즈와 표정이 정말 자유롭고 다양했다. 미술관에서도 다양한 모습에 신기했는데, 바이딘 사원에서 약

500개의 석조상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쌍둥이 석조상도 기억에 남는다. 걸으면서 팔각형 종탑을 비롯해 관세음전, 여러 불상들과 포대화상, 13층 불탑 등을 볼 수 있었는데, 같은 불교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베트남만의 느낌이 너무 신기했다. 돌아본 곳이 엄청 넓은 곳들은 아니었지만, 날씨가 습해 걷기가 힘들긴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볼거리도 너무 많았고, 베트남의 불교 문화를 직접 살펴볼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



#### 4. 베트남 문화 체험

셋째 날 팀별 활동으로 베트남의 택시인 '그랩'을 타보고, 베트남 마사지 체험을 받아보았다. 마사지는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발마사지의 경우 90분에 49만동으로 한화로 약 2만 7천원 정도였다. 마사지를 돈 내고 받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한 내부와 깔끔한 마사지에 상당히 만족했다. 업체에 따라 가격과 마사지 강도, 위생이 천차만별이니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베트남에서 가장 다행이었던 것은 베트남 음식이 입에 맞았다는 것이다. 일정 중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가장 입에 맞았던 것은 쌀국수였다. 일정 첫날 점心和 호텔 조식, 마지막 날 호텔 뷔페에서 쌀국수를 모두 먹어봤는데, 모두 다른 맛으로 맛있었다. 특히 마지막 날 뷔페에서의 쌀국수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것이 흥미로웠다. 뷔페에서 현지인들이 자주 먹는 음식을 살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푸딩을 많이 드시는 걸 볼 수 있었다. 베트남 음료를 먹으며 달달한 음식이 많다고 느끼긴 했지만, 밀크티에 들어가 있는 펄을 젤리나 떡 같은 것과 섞어 디저트로 많이 드시는 것을 보고 디저트류가 꽤 인기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 이런 메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팔빙수의 재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다.

베트남의 코코넛을 비롯한 다양한 음료들과 더불어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망고스틴이나 두리안 등의 현지 과일들을 저렴한 가격이 맛볼 수 있었다. 특히 두리안의 경우, 냄새와 달리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이 놀랐고, 즉석에서 잘라주신 코코넛은 시중에 판매하는 음료만큼보다도 깔끔하고 적당한 단맛이 인상깊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도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코코넛 그대로 먹는 게 더 맛있었던 것 같다.



#### 5. 무역/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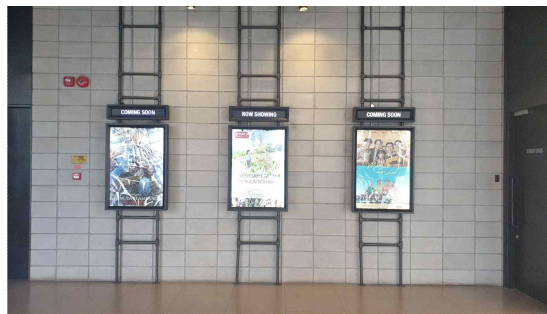
무역과 유통의 경우, 둘째 날의 일정인 '코트라'와 '롯데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4-1학기 국제무역현장실무를 수강하면서 코트라와 베트남 시장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하노이 무역관에서 직접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 현재 한국이 얼마나 진출해 있는지를 들을 수 있었다. 삼성, LG 등의 대기업도 베트남이 이미 진출되어 있으며, 중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 역시 베트남을 앞으로 진출할 주요 국가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롯데에서는 베트남 분석, 기획, 마케팅 등의 내용을 들으며 해외 마케팅에서의 주요 요소들을 배웠다. 하노이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롯데마트이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베트남 현지인들의 소비수준, 취향 등을 고려하여 여러 업체들을 입점시켰고, 디자인과 문화 체험 요소에서도 많은 것들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롯데 마트에서의 약간의 시간이 주어져 마트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라면, 과자를 비롯한 많은 한국 식품이 영어와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진열되어 있었으며,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먹는 베트남 기업의 커피와 아몬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 다른 SNS보다 페이스북의 사용량이 높아 페이스북을 주력으로 마

케팅을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 작가와의 콜라보도 진행했다.

이후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K-MART**에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곳은 국제무역현장실무 때 함께 했던 식품 업체의 제품이 납품될 곳이었다. 내부는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거의 모든 제품이 한국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한인타운답게 주변에서 파리바게트나 다양한 한국 식당, 가게들을 볼 수 있었다.

추가로 베트남 국립대학교 일정에서 한 건물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CGV**', '**두끼**', '**네컷필름**' 가게를 볼 수 있었다. CGV는 한국 CGV 스타일을 변형 없이 디자인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영화뿐만 아니라 강동원, 이종석 주연의 영화 '설계자'의 팸플렛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끼는 한국어 간판과 'Korean Topokki Buffet'의 영문을 동반하여 현지인에게 다양한 한식을 판매하고 있었고 네컷 필름은 정확한 간판명은 기억나질 않으나 방탄소년단 화양연화 뮤비의 버스정류장을 재현해놓으며 인증샷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등의 다양한 한글 네온사인도 걸어두고 있었다. 한 건물 내에서만 한국과 관련한 식품, 엔터 등의 여러 기업을 확인하면서 한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결제 중이던 **OTT 티빙**을 현지에서 시청하려고 했을 때,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시청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 베트남은 한국어과도 상당히 많은 곳이라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직원도 있을 정도고, '선재 없고 튀어'의 최근 드라마도 알고 있는 베트남에서 아직 티빙 자체 서비스가 되지 않고 VPN을 우회해야 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아쉬웠다. 자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서비스를 더욱 넓히는 방향도 고려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이번 해외문화체험으로 베트남에 처음 방문했다. 학교 팀플로 베트남 유학생들을 몇 명 만날 수는 있었지만, '베트남'이란 국가를 직접 가보고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번 해외문화체험이 처음이었다. 코트라, 롯데 방문을 통해 지난 학기 배웠던 유통, 무역, 마케팅이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자유 일정을 통해 평소 가보고 싶었던 하노이의 여러 장소들을 방문해보면서,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욱 공부할 수 있었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현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더불어 낯선 거리를 걷는 것, 좋아하는 것을 낯선 공간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낯선 문화를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것 같다. 1학기 때 전공은 물론 국제학부의 여러 과목을 수강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노력과 과정, 뿌듯함이 내 진로 결정 요소 중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문화 체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여전히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2학기 때 역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나를 발전시키고, 학업을 넘어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 지금보다 더 주체적이고 성장한 나를 만들어보고 싶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다음 학기에 진행하는 문화 체험도 참여하여 성장한 나를 확인해보고 싶다.

##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일정이 생각보다 빠듯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저녁 일정을 조금 미루더라도 관람 시간을 보다 넉넉히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소중한 기회이고 좋은



시간이지만, 베트남 현지 대학생이나 현지 직원분들과의 만남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했던 일정이었고, 다음 진행할 때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더 재밌는 일정이 될 것 같다.

####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1학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2학년 때는 인지는 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으며, 3학년이 되어서야 국제학부의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파란학기나 교환학생과 같은 프로그램은 많이 알지만 국제학부의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짧은 일정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팀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를 각각 진행하고 기존의 단체 일정이 꽤 빠빠하여 힘들기도 했지만, 되돌아 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알찼던지라 흥미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코트나 롯데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국제학부 프로그램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학기를 마치고 힐링 겸 신청한 프로그램이었지만, 힐링은 물론이고 국제학부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일정을 하는 시간으로도 만족했던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홍보를 더 많이 하여 더 많은 학우, 후배들이 방학 한 주 동안 배움과 힐링의 일정을 경험해보았으면 좋겠다.